



세계의 도시역사박물관 순례  
**자그레브시립박물관**  
 Zagreb City Museum

김우림 | 서울역사박물관장

필자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를 방문한 것은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였다. 방문목적은 2004 서울 ICOM 대회의 29개 국제분과위원회 중의 하나인 국제고고학·역사박물관위원회(ICMAH)의 행사 주제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기간 중 방문하게 된 '자그레브시립박물관', 그것은 한마디로 도시역사박물관의 벤치마킹 대상 제1호이었다.

자그레브시립박물관은 1907년 설립하였는데 설립 90주년이 되는 1997년, 최신식 박물관 전시 기법을 이용하여 복원된 건물에 새로 재개관한 박물관이다. 전시는 박물관 건물 아래에서 최근에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기원전 7세기 철기시대 주거지)을 그대로 건물 안에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그레브 시의 흔적과 과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박물관의 상설전이 표방하고 있는 기본 개념은 "잘 결합된 연대기적이고 주제가 있는 접근, 그리고 동 시대 박물관학의 기술적인 원칙들의 적용으로 관람객들의 관심도와 접근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상설전은 정치, 종교, 역사, 경제, 비즈니스, 도시설계, 건축 그리고 예술, 문학, 오락 그리고 일상생활의 역사적 측면에서 도시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주제와 유물의 다양성은, 희귀한 물건들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유물에 이르기까지, 예술적인 것에서 대중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박물관의 특별한 매력을 부가시킨다. 무려 45개의 주제가 있는 순서에 맞추어서, 전시는 자그레브의 다양한 삶의 특징과 도시 풍경의 변이 속으로 관람객을 유도한다. 45개의 각기 다른 주제들은 흥미롭고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문서를 통하여,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 속에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일련의 특징 있는 주제들과 사건들을 구성하였다.

전시실을 빠져나가는 도중에는 많은 포스터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20세기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타임머신을 형성하는 시각적 메시지를 통해 보여지는 도시의 삶을 암시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자그레브시립박물관은 상설전으로 자그레브 시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으며, 박물관 건축가인 젤코 코바치크(Željko Kovačić)는 상설전 전시로 베르나르도 베르나르디상(Bernardo Bernardi Prize)을 받았다. 자그레브시립박물관은 2000년 유럽박물관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 1 자그레브 시가도와 주요건물모형(Green Horseshoe)
- 2 부분복원된 후철기시대 지하유적, 기원전 1세기
- 3 구도시 모형(Kaptol)
- 4 성 마가의 바로크제단  
(The Baroque Altars of ST Mark's)



자그레브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 [www.mdc.hr/ngz](http://www.mdc.hr/ngz)